

# 손명수 차관, “기후변화 대응한 도로관리 혁신” 강조

## 9일 도로 성능시험장 방문, 기술개발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노력 당부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(수), 경기도 연천군의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(K-ROAD, 이하 도로 성능시험장)을 방문하여 유례없는 장기간 장마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- 손 차관은 도로 성능시험장에서 SOC 건설·관리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
  - “변화하는 기후특성 등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 관리기술 개발이 긴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  - 또한, “국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검증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손 차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상재현 시험센터, 연구 테스트베드 등을 둘러보고 도로SOC 신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원 등을 격려했다.
  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SOC 디지털화를 위해 도로SOC 관리 분야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개발의 적극 추진”을 주문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기상환경 등에서 도로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성능시험장 조성을 ‘23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.

2020. 9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